



행자교육 회향식 가족 축하속에...

Focus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 회향 및 수계법회가 최초로 교육생들의 은사와 속가 부모형제, 신도들의 동참·축하 속에 9월 18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됐다. 교육원은 행자들이 예비승려인 사미(尼)가 되는 순간은 사부대중의 축복속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수계식을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했다.

교육원장 일면,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무관스님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사미 149명, 사미니 112명 등 총 261명이 수계를 받았다.

사진은 범어사 수용 사미(사진 가운데)가 수계식 후 은사인 능허스님(직지사 강사)과 축하차 온 가족·사할 신도와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유일한 외국인 행자 청도 사미 "늘 내면의 마음 지켜봐요"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50세의 늦깎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있으나 특히 눈길을 끈 행자는 푸른 눈의 폴 스티븐슨(법명 普道, 44세). 수계자 261명중 유일한 외국인 스티븐슨은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으로 뉴욕의 알프레드 대학에서 사진예술을 전공, 20여년간 활동하다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위해 불교에 입문했다.

97년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과 인연을 맺은 폴 스티븐슨은 한국에 오기위해 6개월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로 된 불교서적도 탐독하는 등 준비를 마친후 지난해 충북 음성군 광명선원(前한마음선원 금양지원)에서 해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강의내용을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오후불식과 묵언등 생활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다"는 폴 스티븐슨씨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어떤 스님이 되겠다는 의식보다는 한글을 한글을 오로지 정진할 뿐"이라며 보리심을 밝혔다.

김천=이윤호 기자

조계종 호법부장서리 종지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9월29일 종고스님의 사표 제출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호법부장서리에 종지스님(연곡사 주지)을 임명했다.

종지스님은 70년 도광스님을 은사로 화엄사로 출가, 73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엄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용화사 신일 안거 이후 20안거를 성립했다. 화엄사와 천은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은해사주지 법의스님



은해사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28일 재적승려 65명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은해사 주지직무대행 법의스님을 만장일치로 새주지에 추대했다.

신임주지로 추천된 법의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 본사주지로서의 소임도 수행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조실 스님의 뜻을 받들어 은해사 모든 대중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의스님은 1965년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2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백양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내장사 교무, 안동포교당 법승사주지, 의성 대곡사주지, 대구 대성사주지, 은해사 총무국장등을 역임했다.

은해사는 법의스님의 주지 진산식을 16일 은해사 제1190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거행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고산총무원장 기독교회협서 설법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9월30일 성교회대성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기념예배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리 이전에 인간을 생각하고, 교세 이전에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종교 본래의 경순한 자리에서 종교간 화합과 관용의 아름다움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고산스님(사진 왼쪽)이 KNCC총무 김동완목사의 안내를 받으며 예배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교수·기자등 국제포교사 22명 탄생

국제포교사 22명이 새로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일면)은 9월18일 2층 강의실에서 제4기 국제포교사 연수 수료식 및 품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품수식에서는 모두 21명이 국제포교사 자격을 품수받았으며, 에드워드 뮤지카 박사(前 미 UCLA대 교수)가 처음으로 명예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배출된 국제포교사들중에는 방송사 기자가 3명이나 포함되는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함돼 눈길을 모았다. 비구니 도겸·혜연·정호스님을 비롯 김종걸 성균관대 교수, BBS 강선문·이송근 기자, SBS 서광교 기자, 환경전문가 이주경씨, 선체조 지도자 안중용씨, 학원장 김병근씨, 영어통역사 이재원씨, 어린이법회 교사 김윤희씨 등이 그들.

이로써 4기까지 배출된 국제포교사는 모두 80명이 되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교차로

불우청소년에 2천만원 전달

현승 승가원 이사장 스님은 9월21일 서울 강북구청에서 승가원이 주최한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마련한 1천8백만원 등 2천3백만원에 7명의 지역 불우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소년기장·독거노인에 성금

해광 법주사 주지는 9월22일 청주 시장실을 방문해 나기청 청주시장에게 청주권 소년소녀 가장 및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제45회 백제문화제 유등제

장곡 공주시시암연합회 회장 스님은 11일 오후 6시30분 금강둔치

공원에서 백제문화제 행사

공원에서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45회 백제유등제를 봉행한다.

남북통일기원 영산대재

혜승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원각사 주지)은 의정부시, 경기문화재단, 의정부시문화원 후원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시청앞 평화의광장에서 제6회 남북통일 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제1회 어린이 글짓기 큰잔치

지원 불교어린이교연합회 회장 스님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가곡공원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및 연예인 초청 큰잔치를 연다.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 (02)3281-3251

자비의 전화 이전개원 법회

정덕 '자비의 전화' 회장 스님은 9월 18일 조계종 포교원 건물 4층으로 이전, 개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4일 오후2시 동국대의과대학·한의과대학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을 고양시 식사동 병원건립부지에서 갖는다.

중앙신도회 시무처 이전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4일 서울 인사동 사무처에서 삼일운영회의를 열고 99

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5일 견지종 조계사 인근 상운중심빌딩 3,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02)733-7277

'동국의료원 개혁보고서' 발간

조재호 동국대 의료원장은 95년 선정한 23개 중점 과제 및 세부실천업무 100여개를 실천해 온 결과를 정리해 <동국의료원 100대 개혁과제 추진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부루니합창단 정기공연

제정희 제주 불교부루니합창단장은 7일 오후 7시30분 제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음악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대구 동화사 불향합창단 단장 유광스님이 우정출연 한다.



서울의 새천년 맞이 행사

조계종 포교원장 정원스님은 9월29일 열린 새천년맞이 '한민족 희망과 평화나눔기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 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이평)가 서울 율리피공원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새천년의 꿈과 평화메시지를 담아 5천여개의 다양한 풍선이 날려졌다.

권희로씨 영남불교대서 첫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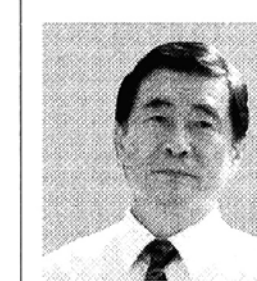
"봉사에 여성 바칠터"



귀국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권희로씨가 9월29일 영남불교대학(주지 우학)에서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모정불심(母情佛心)'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씨는 어머니의 유골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내보이며 "오늘 이 자리에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씨는 앞으로 자서전을 발간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학자 김인덕 박사 별세



로 철학박사를 취득한 김인덕 교수는 용수의 <종론>연구로 한국불교 발전에 공헌했다. 교수는 72년 대한불교삼장종 교리연구위원장을 역임하고, 76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92년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찬위원, 97년 불교학과 대학원 학과장,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도 삼론의 기본사상> 등이, 논문으로는 <백제의 삼론교> <반야바라밀에 의한 시간과 중생 제도> <반야바라밀과 보살의 제명> <대승신행의 본질> <반야경과 금강경의 특징적 가르침> 등이 있다.

통도사 개산대재 1354주년 대축제

통도사 개산 대축제

귀의 삼보하옵고

결실의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음력 9월 9일(중양절) 통도사 개산조신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정골 진신사리를 봉안 금강계단을 쌓으시니 이날이 곧 통도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불지종가 국제대찰인 본사에서는 연예인 설운도, 김세레나, 남보원, 장미화, 최석준, 김병찬 그리고 부산 MBC 악단을 초청 더욱 뜻깊은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을 접수받습니다(1매에 5만원 이상). 기업체나 자기소개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개산대재 전야제 박물관 행사

통도사 개산 1354주년 기념 제1회 통도사성보박물관 성보예술제

10월 16일(토) | 오후 2시 제1회 성보예술제 개막·박물관 중앙홀
오후 3시 부도전 현대의례 재현·부도전
오후 4시 통도사성보합창단 찬불공연·부도전

식순

- 입재식 : 1999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설법전 삼귀의, 반야심경, 자장율사 행장소개(강주스님) 헌향 헌다 - 선다회 상공 - 노전스님 인사 - 집행위원장스님
- 11시 점심공양(경로잔치 겸함) - 장소 : 감로당 (신도는 식당)
- 12시 ~ 1시 합창단 소개(단장 및 지휘자 단원 명단소개)
- 1시 ~ 3시 연예인 잔치
- 3시 ~ 5시 어산법회, 구국영령 천도의 밤
- 6시 예불 및 점등식

*문의전화 : 통도사 0523-382-7182-7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월하 합장